

광주시, 시민과 함께하는 정신건강 축제 연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정신건강 홍보주간'(10월 10~24일)을 맞아 시민의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세계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을 기념하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마음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광주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5개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은 마주하면서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먼저 24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는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유공자에 대한 시상 표창과 함께 '자존감 수업' 저자이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윤홍균 박사가 '포기하지 않는 힘, 마음 지구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부대행사로선 정신건강 홍보부스를 운영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센터 안

10~24일 정신건강주간... 24일 시청서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

정신건강 인식 개선·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마음회복 지원

내 ▲정신건강 특화사업 소개 ▲스트레스 측정, 정신건강 자가검진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 등을 안내한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광주 정신건강 문화행사 누리집(https://gmhc.quv.kr) 또는 전화(062-600-1943)를 통해 사전 신청하거나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5개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13일부터 21일까지 '우리동네 정신건강 캠페인'을 진행한다. ▲동구에서는 컬러링북 체험과 중독 인식개선 ▲서구는 마음안심서비스를 활용한 이동상담과 퍼즐퀴즈 ▲남구는 참여형 팝업 전시와 가상음주체험 ▲북구는 정신건강 사생대회와 북콘서트 ▲광산구에서는 DIY 체험과 보드게임 프로그램 등 지역 특성을 살린 활동으로 시민들에게 정

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린다.

정신건강 작품 전시회도 열린다. 21~24일 시청 1층 열린문화공간에서 정신건강 당사자가 직접 그린 그림과 김진홍 작가 '뒤 돌아보라', 유영길 작가의 '희망을 피우다' 등 55점의 작품이 전시돼 시민과 당사가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광주시는 시민의 마음건강을 지키기 위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더불어 자치구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광역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 맞춤 관리 및 위기 상황 대응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사업 ▲청년 마음건강 사업 ▲재난 심리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민의 정신건강을 지원한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알코올·약물·도박 등 각종 중독 문제 조기발견 및



단기 상담·치료서비스 ▲중독질환자 및 가족 지원 사업 ▲중독예방 교육과 캠페인 등을 추진하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배강숙 건강위생과장은 "시민들이 마음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필요한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신건강 문화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광춘 기자



광주 서구 '바로문자하랑께' 누적 1만건 돌파 주민 체감형 소통행정 모델로 자리매김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의 대표 소통창구 '바로문자하랑께(010-3080-8249)'가 시행 3년 만에 누적 접수 1만 건을 돌파하며 신속하고 친근한 주민 소통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서구는 15일 오전 8시43분 '상무시민공원 고사목 정비'에 관한 생활민원 1만 번째 문자메시지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공원 내 소나무들이 고사 중이거나 고사 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전체 점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서구 공무원과는 당일 즉시 현장 확인 후 민원인에게 정비 계획을 안내하며 신속히 대응했다.

'바로문자하랑께'는 민선8기 출범 직후인 2022년 8월 도입한 구청장 직통 문자 소통 플랫폼이다. 생활민원이나 정책제안 등을 문자로 보내면 담당 부서가 48시간 이내에 검토·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구는 이를 위해 전담팀(바로소통팀)을 구성하고, 모든 접수 건을 실시간으로 해당 부서에 전달해 팀장 이상 간부가 직접 응대·보고하는 책임 체계를 갖췄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매일 아침 접수 현황과 처리결과를 직접

챙겨며, 필요시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소통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분야별로는 생활민원이 63%로 가장 많았고 정책제안, 안전관련, 제도 개선 순이었다. 보도정비, 불법주정차 단속, 폐기물 처리 등 대부분의 생활민원은 24시간 이내 처리되어 '바로문자하랑께=바로 해결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전체 접수 건 중 1600여 건(16%)은 '응원·감사문자'로 집계되어 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정책 시행 3주년을 맞아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 10명 중 8명이 민원 접수과정과 처리 결과가 "만족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민원 접수 편리성 ▲처리 신속성 ▲직원 친절성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응답자의 80% 이상이 "다시 이용하겠다", "주변에 추천하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주민 체감형 행정은 서구가 5년 연속 행정 서비스 1위 평가를 받는 밑거름이 됐다. 또 전화·방문민원이 감소하고 전자민원 응답률이 꾸준히 향상되는 등 행정 효율성도 높아지고 있다. /박석우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경로당 이용 활성화와 어르신 불편 사항 해소 차원에서 관내 경로당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나선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2025년 노인복지시설 점검이 오는 24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된다. 남구는 경로당을 이용 중인 어르신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연 1회 이상 조직 운영 전반과 회계 등을 살펴보는 정기 점검을 비롯해 수시

광주 남구, 경로당 이용 불편 사항 살핀다

관내 262곳 점검... 난방기·정수기·와이파이까지 조사

점검을 여러 차례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점검은 경로당 어르신들의 생활 실태 파악을 위한 수시 점검 성격의 검사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경로당 262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다가오는 겨울을 앞두고 보일러 등 난방기기의 정상 작동 여

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와 가스 공급 이상 유무도 꼼꼼히 살핀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수기를 비롯해 수리가 필요한 가전제품의 현황도 파악하며, 와이파이 작동 여부도 점검한다.

이밖에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으뜸효 노래자랑과 신체활동 및 인지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어르신들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경로당 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방문을 통해 불편 사항을 일제히 점검하기로 했다"면서 "노년이 아름다운 행복 경로당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채일 기자

광주 동구(구청장 임택)는 최근 치매안심마을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 160세대에 '건강꾸러미'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조선대학교 간호대학교 RISE 사업과 연계해 치매안심마을 대상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및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마련됐다.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보건 역량을 강화하는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동구, 치매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에 건강꾸러미 나눔

건강꾸러미는 영양죽, 로션, 파스, 치매 관련 건강정보지 등으로 구성,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다가오는 겨울철 건강관리를 고려해 꾸러졌다.

동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치매 어르신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안부 확인 등 지속적인 맞춤형 사례 관리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조선 간호대학교와의 연계성을 통해 치매안심마을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치매안심센터는 치매안심마을 조성과 운영, 1:1 맞춤형 사례관리 등 다양한 치매 관리 사업을 추진해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철수 기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오는 17일 주민들의 건강한 일상을 책임지기 위한 '주치의제 시범사업'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주치의제 시범사업 실행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주치의제 시범사업의 정책모형 구성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해온 연구용역 결과를 설명하고 전문가들의 토론을

북구, '주치의제 시범사업' 실행방안 최종보고회 개최

통해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보고회는 17일 오후 4시 북구청 회의실에서 문인 북구청장을 비롯한 임종한 인하대학교 교수, 홍승권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회장, 지역 의료 관계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결과 최종

보고 ▲패널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연구용역 결과 보고는 용역을 수행한 임종한 교수가 직접 나서 연구 배경 및 목적, 지역 특성 반영 주치의 모델, 북구 주치의제 10대 중점 서비스, 향후 과제 등 지난 3개월에 걸쳐 진행된 연구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10대 중점 서비스'는 '지역 기반 환자 중심 일차의료' 개념에 따라 ▲건강평가 ▲관성질환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진료의뢰 ▲회송관리 ▲요양·돌봄 복지 연계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업이 시행되면 주민들의 개별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될 전망이다. /송현근 기자

1면에서 이어짐

위기브는 행정안전부가 만든 고향사랑기부제 공공 플랫폼 '고향사랑e음'의 초기 안착 문제로 전국 많은 지자체들이 대안으로 선택한 민간 플랫폼이다. 전국 55개 지자체가 가입돼 있다.

위기브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활용해온 광주의 한 자치구는 국정지원 화재로 인한 재정 수입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해당 자치구 관계자는 "지난해 우리 구가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 중 60%가 위기브를 통해 모였다. 올해는 모금액이 지난해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5배가 늘었는데 대다수가 위기브를 통한 모금이었다"며 "수입 확대를 위해 연말정산 홍보도 앞당겨 지난 8월부터 진행해왔는데 국정지원 화재가 변수가 될 줄 몰랐다. 하루빨리

복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자치구 관계자도 "행정안전부가 만든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플랫폼 '고향사랑e음'은 정상작동 중"이라며 "위기브도 빨리 복구해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에 맞는 운영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정지원 대전 본원 5층 전산실에서 작업자 13명이 리튬 배터리를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배터리 1개에서 불꽃이 튀며 불이 났다. 이 불로 709개 행정 시스템 가동이 중단되면서 현재까지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민 일상에 영향이 큰 보훈서비스와 법령정보 서비스 등 1·2등급을 포함해 미복구 시스템 289개를 이달 말까지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원 기자

